

동아병원 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



동아병원 동아사랑모아봉사단(단장 정재훈 원장) 회원들과 일촌 공동체 회원 등 3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촌동 지역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10가구를 방문,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신대 음악학과 '아마빌레연주회'



광신대학교 음악학과는 최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아마빌레연주회'를 개최했다. 매년 11월에 열리는 아마빌레연주회는 광신대학교 음악학과 학생들의 전공실기 능력 향상과 음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주 관객으로 하고 있다.

신보 호남본부 저소득 가정에 연탄 배달



신보방송기금 호남영업본부(본부장 김중선)는 지난 21일 (사)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연탄 4천500장을 기부하고,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지역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를 열었다.



조선대 동아시아경제제 쉼 '동아시아 지역주의-' 세미나

조선대학교 동아시아경제연구소(소장 이병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저명한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 학자를 초청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 공동의 장·단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사진)

조선대 동아시아경제연구소는 최근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2009년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한국학진흥원설립으로 호남학 전국화 앞장서는 조성식 기획협력처장

“수준 높은 호남문화 지역민들 관심 너무 부족”

“한국학진흥원이 호남권 한국학·한국문화 진흥주체로 위상을 정립해야 만이 호남을 한국문화의 원형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문화의 브랜드화 하고 지역으로 진흥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 초 한국학진흥원의 재단법인 등록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학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 조성식 기획협력처장은 “한국학진흥원이 한국학·한국문화 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단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들의 관심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성식 기획협력처장은 “지난 2007년 꾸려진 한국학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는 광주와 전남북의 유력 인사 4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첫 걸음을 뒀지만 아직 다른 지역의 연구원에 비하면 지역의 진흥주체로서는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자평했다.

한국학 진흥에 매진하는 기관으로는 호남의 한국학진흥원 외에도 서울·경기·충청을 아울러

기호학을 집대성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원·경상권을 망라해 영남학을 집대성하는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다.

조 처장은 “호남의 한국학진흥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국학진흥원에 비금가는 한국학·한국문화 중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호남 지역민의 한없는 사랑과 정성어린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호남은 청동기 문화의 상징인 고인돌의 최대 분포지였고, 마한과 백제때는 수준높은 문화를 일궈냈다. 통일신라 때는 해상왕국의 근거지요, 조선시대에는 올바른 주장을 펼치다 축출된 인물이 나향하거나 유배돼 학문과 사상의 중흥을 이뤄 타지역 사람들로부터 ‘예향’이라는 존칭을 얻었다. 호남은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다. 많은 의병장과 동학농민혁명, 한말 의병운동, 일제강점기 학생운동, 4·19혁명과 5·18광주민중항쟁 등으로 이어지면 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한 소임을 다한 곳이 있다.

“이처럼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라 고 말 할 정도로 호남은 민족의 역사·문화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한국학 진흥원을 중심으로 호남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조 처장은 “한국학진흥원이 호남권의 한국학·한국문화 진흥주체로 서게 된다면 1970년 이래 다산학·호남학 활동, 무등산권 문화유산 보존활동, 호남문화진흥원 설립 활동, 지역문화 교류호남재단 창립 등 지역 인사들의 40년 가까이 세월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에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시·도의회 의장이 단원직 이사를, 추진위원으로는 호남지역 전체에 걸쳐 대학총장,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의원 등 각계 각층 인사 450여명이 참여하는 등 호남권의 대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존 신지에 뒤에 숨은 도우미 있었네

골퍼 양영아 동생 양영의씨 미국 생활·투어 등 편의제공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은 필드 위에서뿐 아니라 골프장을 떠나서도 계속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때가 잦다.

낮선 미국 생활을 하며 겪는 소소한 어려움 하나하나가 경기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 테네시주에서 스포츠 경영 대학원 과정을 마친 양영의(29·사진)씨는 선수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다.

양영의 씨는 ‘골프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와 ‘얼짱 골퍼’ 최나연(22·SK텔레콤)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세마 스포츠마케팅의 미국 내 담당자 역할을 맡고 있고 오지영(21·마벨러스)에게도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양영의 씨는 LPGA 투어 프로인 양영아(30)의 친동생이라 더 눈길을 끈다.

2004년 LPGA 투어 자이언트티글 클래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언니의 영향으로 스포츠, 그중에서도 골퍼와 인연을 맺은 양영의 씨는 선수들에게 교통 및 숙박 예약, LPGA 투어와 관련한 서류 업무와 기타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투어를 함께 다니며 모든 일을 도맡



아 해주는 매니저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미국 생활을 처음 하는 처지에서는 더 생소할 수 있다. 신지에의 아버지 신재삼씨도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든든해 했다.

2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LPGA 투어 2009 시즌 시상식에서 신지에가 멋진 연설로 기립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양영의씨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변호사 제프 노튼에게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요청했고 노튼 변호사는 휴스턴까지 직접 날아와 신지에와 함께 연설 준비 작업에 나섰다.

또 최나연이 9월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할 때 함께 호흡을 맞춘 새 캐디 폴 푸스코 섭외에 나선 것도 양영의씨였다.

7월 US여자오픈에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의 캐디로 나선 푸스코를 보고 새 캐디로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최나연이 알리자 양영의씨가 전 화 수십 통을 돌린 끝에 푸스코의 행방을 수소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 화순전남대병원서 여성암 환자 돕기 캠페인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지난 20일 오후 2시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암 치료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피부관리, 헤어 스타일링 등 외모를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해 왔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이 캠페인을 통해 암 환자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 자신감 상실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강좌를 열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한 환자들에게 가방과 브로셔 등 메이크업 제품을 제공한 후 아모레퍼시픽 전문 메이크업 강사의 스킨케어 메이크업 강좌를 하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캠페인은 광주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 1천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모두 33회 개최됐다.

권영소 아모레퍼시픽 방관부장은 “암으로 고통받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일 오후 2시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여성 암 환자를 위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고객들의 외면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까지 보듬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긍심 함양에 도움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식품영양과학회 회장에

이명렬 조선대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가 최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정기총회에서 2010년도 회장(임기 1년)에 선출됐다.



이재근 전 국회의원 별세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재근 전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나주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광주교과서장과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또 전북 익산에 황동산업을 설립·운영했으며 나주 금성학원(금성중·금성고·나주공고) 이사장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고향인 나주에서 제11·12·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국회 상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익행씨와 딸 송·향·진경·지현 씨가 있다.

발인은 24일, 빈소는 서울 송파구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02-3010-2632).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장충철·강을례씨 장남 우석(STX중공업)군 홍흥식(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유영희씨 자녀 지혜(용봉중학교 교사)양=29일(일) 낮 12시 웨딩의 전담 금호30층(아시안나홀)

동창·동문회

▲복성중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3일(월) 오후 7시 각 화동 왕서방 식음식당. 062-263-0402. ▲복성중 20회 동창회(회장 박재우) 월례회=24일(화) 오후 7시 북구청 앞 오리명가. 062-262-4488. ▲제8회 전남대 사학과 동문의 밤=28일(토) 오후 5시30분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5층 연회장. 062-362-0011.

▲광주 동신여고 총동창회(회장 박명숙)=28일(토) 오후 5시 무등파크호텔 3층. 011-602-1573.

종친회

▲경영교 정지 장군 제618주기 추모제 및 사당 준공식 참석=24일(화) 오전 11시 경영사 신축된 사당. 062-365-1187. ▲진양(진주) 하씨 대시간공 종중회(회장 하권량) 시묘제=25일(수) 오전 10시 정읍시 신월동 선산 010-3607-3369.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회귀화해 전시회=12월31일까지

지 광주광역시하철역 역무실 앞, 은대(세계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시대) 때 동물 뼈로 만든 골제폐화 등 33년간 직접 수집한 화폐 500개 전시, 문의 박용권(011-604-6132).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만성질환관리·영양·우울증 및 스트레스·음주관리·흡연과 금연 강의=12월31일까지. 대상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일반 및 집중관리 등 록환자. 투약보건의료 2층 보건교육실. 062-410-8195.

모집

▲미술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1시~2시2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디지털카메라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재봉틀 홀패션 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전 10~11시5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동구문화센터 겨울학기 문화강좌 회원모집=홈페이지 www.macj.kr 또는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전경 노래교실회원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2시~3시30분 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색소폰 교육회원 모집=매주

월요일 오후 6~8시 동구 문화센터. 062-225-8700.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 신입생 모집=23일~12월2일 오후 5시까지. 남자 48명·여자 48명 광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062-520-4363.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혜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 모집=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062-381-5051.

▲꽃골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후원원 선발=발로 불을 차 출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점대교동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김 양식장·김 공장·선원 일하실 분 모집=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관광 백운과파초소 부근. 062-

671-3693. ▲광주FC 축구회원 모집=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윤암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부음

▲박옥희씨 별세 윤계동·영복·용복·영중·영교·윤미·미란씨 모친상=발인 24일(화) 화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서정용씨 별세 은정(화순고려병원)·은지씨 부친상=발인 24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서정순씨 별세 최성관·문일·미

숙·덕임·민숙씨 모친상=발인 23일(월) 화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병표씨 별세 형수·상근·재범씨 부친상=발인 23일(월) 화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김정순씨 별세 김남옥씨 모친상=발인 23일(월)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한정섭씨 별세 홍규·홍규·홍연·순례·순자씨 부친상=발인 23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이운해(라인교회 목사)씨 별세 기천·기정씨 부친상=발인 23일(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두번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선진국형 프리드 선진국형 프리드 현대중압상조 가임폰 1566-4499